

2008년 11월 04일 (화) 16:30 [뉴스시스](#)
문화도시 울산 구현... '지역문화재단 설립' 불가피

【울산=뉴스시스】

"2000년대는 '창조적 도시계획 시기'로 문화예술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문화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예총](#) 울산시연합회(회장 이희석)가 4일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울산예술발전 심포지엄에서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가 상승, 관광객 증대와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도시재생 및 활성화, 장소의 질 개선, 범죄율 하락 등 재생·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술 접근성 강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와 소속감 부여 등 공동체 강화 효과, 지역이미지 창출 등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의 시정 방침에서 올해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가 역점시책,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도시'가 시정방침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다"며 "인구 100만 명에 어울리는 부자도시 울산 시민의 문화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조기암 대구시 문화예술과 문화기획담당은 '지역문화재단의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재단 설립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날 전현철 부산대 예술경영전공 박사과정 수료자와 백운봉 [한국연극협회](#) 울산시지회장, 김성태 울산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울산예술발전을 모색했다.

< 관련사진 있음 >

고은희기자 gogo@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